

'40cm 눈폭탄' 광주·전남 시설 피해 속출

광주 적설량 역대 3위...최고치 경신 가능성 농축 하우스 32동 파손, 잇단 교통·낙상사고

대설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20개 시군에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사고가 속출하고 도로와 뱃길, 항공편이 막혔다. 농작물 재배 시설하우스가 무너지는 피해도났다.

광주는 역대 적설량 3위를 기록했다. 내일까지 눈이 예보돼 적설량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나온다. 도심 전체가 눈으로 뒤덮이면서 출근·등굣길이 마비되기도 했다.

◆'최고 40cm' 광주·전남 21개 시군 대설특보

23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전남부터 이날 오후 6시 사이 최심 적설량(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은 광주 40cm, 장성 33.5cm, 화순 29.1cm, 담양 25.9cm, 곡성 석곡 20.4cm, 장흥 유치 17.9cm, 순천 17.1cm, 나주 13.6cm 등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와 나주·담양·곡성·장성·화순·순천·장흥·영암에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다. 여수·광양을 제외한 전남 나머지 시군 12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다. 고흥·보성·여수·순천·장흥·강진·해남·완도·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담양·곡성·구례·화순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광주 역대 3번째 최다 적설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 최심 적설량은 40cm다. 2008년 1월 1일 41.9cm, 2005년 12월 22일 40.5cm의 뒤를 잇는 적설량을 기록 중이다.

6년 전인 2016년 1월 18일부터 25일 사이 기록한 누적적설량 25.7cm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기도 하다.

기상청은 오는 24일까지 광주·전남 곳곳에 5~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예보대로 눈이 더 올 경우 극값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전남 강진 누적 적설량도 14.4cm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공공 얼어붙은 도로...잇단 교통·낙상 사고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8시 48분 전남 장흥군 남해고속도로(영암 방면) 장흥톨게이트 주변에서 액화산소가스를 싣고 가던 25t 탱크로리가 눈길에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A(51)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오전 7시 27분 곡성군 호남고속도로에서 45인승 버스가 교통시설을 충격하고 왼쪽으로 넘어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날 오후 4시 41분 영암군 삼호읍 한 평도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주변 저수지에 빠져 운전자 B(48·여)씨가 숨졌다. B씨가 1차선에서 앞서가던 차와 추돌을 피하려고 2차로 쪽으로 방향을 급히 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눈길 미끄러짐과 운전 부주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이른바 낙상(落傷) 사고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1시 10분 광주 북구 중흥동에선 30대 여성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받고 있다. 이날 오전 4시부터 6시 30분 사이 순천·영광·해남 등지에서도 낙상 사고가 잇따랐다.

전날부터 이날 현재까지 광주에선 교통사고 13건·낙상 사고 23건·안전조치 16건, 전남에선 교통사고 15건·낙상 사고 40건·안전 조치 59건이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수 십개동 폭삭

담양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30개



동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파 또는 반파됐다. 월산면이 8개동으로 가장 많고, 고서면 5개동, 담양읍·대전면 각 4개동, 봉산면 3개동, 수북면·용면·금성면 각 2개동, 대덕면 1개동이다.

담양읍에서는 축갯을 재배 중인 하우스 3개동과 마늘하우스 1개동이 전파됐고, 대동면과 금성면에서는 겨울철 작물 재배가 이뤄지지 않아 비어 있던 하우스 1개동씩이 각각 전파됐다.

이밖에 딸기·블루베리·시금치 농가도 크고 작은 피해를 봤다.

보성 하우스 1개동과 화순 축사 1개동도 무너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설에 막힌 도로·뱃길·하늘길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도 통제됐다.

광주 송강로 5.4km, 무등로 2.1km 구간이 통제됐고, 시내버스 60개 노선 486대도 단축·우회 운행하고 있다.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도 전면 통제 중이다.

전남에선 구례 산동면~고산터널(4.4km) 진도 두목재(1.5km), 화순 한천면 돛재(3km), 보성 진목마을~주릿재(3km), 순천 낙안면 은방울~빈계재(5.4km), 순천 별량면 운운마을~상사초곡마을(2.54km), 곡성 신평재(2.64km)·고산재(6km) 등 총 14곳의 통행이 차단됐다.

해남·장흥·진도·완도 버스 운행은 전면 중단됐다.

여객선 49개 항로 68척 운항도 통제 중이다. 지역별 통제 현황은 목포 25항로 35척, 완도 13항로 20척, 여수 7항로 9척, 고흥 4항로 4척이다. 광주·여수공항에서는 항공기 각 15편·10편이 결항됐다. 무안국제공항도 김포·제주를 오가는 3편이 결항됐다.

◆눈폭탄에 출근길 교통대란

광주 도심 곳곳에서 출근길 시민과 등굣길 학생의 지각이 속출했다. 시내버스 연착·지연을 비롯해 차량들이 눈길에 뒤엉키면서 일정시간 갇히기도 했다.

특히 고가차도 일대에서 지체체가 심했다. 시민들은 "평소보다 일찍 나왔지만, 출근에만 2시간 넘게 걸렸다"고 입을 모았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사 일정을 조정(휴업, 등교시간 1~2시간 늦춤, 원격수업 전환)했으나 학교장 재량에만 맡기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정상 등교 학교에선 교사·학생들의 지각이 속출했고, 뒤늦게 등교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문자메시지 등을 늦게 발송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광주 지하철 이용객은 늘었다. 이날 출근시간대(오전 7시~오전 9시) 지하철 이용객은 1만 4139명으로, 지난해와 지난해 대비 각 69.3%·52.2% 늘었다.

각 자치단체는 전날부터 제설 작업을 벌였지만 너무 많은 눈이 내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강진소방, 야영장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확대설치 홍보 전개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은 지난 21일 강진군 내 야영장 및 캠핑장(카라반 펜션 포함) 등을 대상으로 강진군청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여수소방·여수시도시관리공단, 소방원협정(MOU) 체결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22일 여수소방서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구조 대응체계 구축 및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소방원 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 기자



광양소방, '영웅이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주는 날!' 행사 추진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최근 '영웅이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주는 날!' 행사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순천경찰, 건설현장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순천경찰서(김중호 경찰서장은)는 22일(목)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순천=김승호 기자



해양경찰교육원, 여수아이디어 찾자 크리스마스 위문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이 지난 22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여수 아이디어 찾자 봉사활동과 위문공연을 펼쳤다.

김재환 기자



광주전남방무청,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휴일 제설 작업

광주전남지방방무청(청장 김용무)은 25일 방문민원들의 안전한 보행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서선욱 기자

통학버스 심정지 장애학생 치료 중 숨져...실무사 2심도 무죄

"호흡곤란 원인 자세 때문인지, 병증으로 인한 것인지 단정 못해"

특수학교 통학 버스에서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 실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 한 특수학교 통학차량실무사 A씨는 2016년 4월 6일 오전 8시 10분부터 8시 35분 사이 학교로 향하는 통학버스 안에서 근육발달과 뇌 병변 장애가 있는 B(7)군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학교에 도착한 직후인 같은 날 오전 8시 38분 기도가 막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68일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B군은 혼자서 목을 가누거나 몸을 움직이기 어려웠고, 호흡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조치가 필요했다. A씨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B군의 가족은 "아들의 반대편 뒷좌석에 앉아 있던 A씨가 B군의 10여 차례의 시름과 울음소리를 듣고도 통화와 핸드폰 검색만 하고 있었다. 머리를 울리려고 여러차례 시도

한 B군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B군이 차에 탑승한 지 7분가량 지난 시점에 B군의 머리를 1차례 교정해준 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증거를 종합하면, B군이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인 관찰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학차량 실무사들에게 고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감정 결과 당시 B군의 머리가 좌석에서 떨어져 앞으로 수그러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좌석에 기대어진 채로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재환 기자

'제설 작업 여파' 광주시, 도로면 포트홀 긴급 보수

오늘부터 '포트홀 안전사고 예방팀' 운영

광주시가 잇단 제설 작업에 따른 포트홀(도로 노면 패임)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로 긴급 보수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적설량 40cm 폭설로 도심 도로 곳곳에서 펼쳐진 제설 작업에 따른 포트홀이 다

수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도 폭설과 제설 작업이 잇따르며 포트홀 7674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관련 사고만 83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26일부터 민간업체와 함께 9개 팀, 21명 규모로 '포트홀 안전

사고 예방팀'을 운영한다. 보수 대상은 폭 20m 이상 도로 407개 노선(총 연장 599km)이다.

앞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에도 눈 내린 직후 포트홀 316곳을 자체 보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해빙기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포트홀 긴급 보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안전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